

질문	답변
CORS가 뭔가요?	<p>CORS는 웹 브라우저에서 다른 도메인(Origin) 간에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안 메커니즘입니다.</p> <p>웹 애플리케이션은 보안상의 이유로 동일 출처 정책(Same-Origin Policy)에 따라 다른 출처의 리소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.</p> <p>출처는 프로토콜, 도메인, 포트 번호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</p> <p>CORS는 이러한 동일 출처 정책을 우회하여 다른 도메인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합니다.</p> <p>웹 애플리케이션의 서버와 브라우저 간에 정의된 규칙을 따라, 다른 도메인의 리소스 요청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이를 통해 보안상의 이슈나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면서도 필요한 데이터 교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.</p> <p>CORS는 HTTP 헤더를 사용하여 구현되며, 주로 서버 측에서 설정됩니다. 주요한 CORS 관련 헤더는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Access-Control-Allow-Origin: 허용할 출처(도메인) 목록을 지정합니다. "*"를 사용하여 모든 출처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.</p> <p>Access-Control-Allow-Methods: 허용할 HTTP 메서드 목록을 지정합니다.</p> <p>Access-Control-Allow-Headers: 허용할 HTTP 헤더 목록을 지정합니다.</p> <p>Access-Control-Expose-Headers: 클라이언트가 접근할 수 있는 헤더 목록을 지정합니다.</p> <p>Access-Control-Allow-Credentials: 쿠키와 같은 인증 정보를 요청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나타냅니다.</p> <p>Access-Control-Max-Age: 사전 요청(Preflight)의 유효 시간을 지정합니다.</p> <p>CORS는 보안 및 데이터 공유의 중요한 측면을 다루므로 웹 개발자들은 이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구성하여 웹 애플리케이션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</p>
CORS를 겪고 직접 해결해 본 경험이 있으면 말해주세요	<p>React를 사용한 프로젝트에서 CORS 문제가 발생했을때 proxy middleware를 사용하여 해결했습니다.</p> <p>클라이언트 코드에서 API 요청을 보낼 때, /api 경로를 사용하여 프록시 미들웨어를 통해 API 서버로 요청을 보냅니다.</p> <p>이렇게 설정하면 **http-proxy-middleware**를 사용하여 프록시 미들웨어를 통해 API 요청을 보내게 되며, 브라우저에서의 CORS 문제를 우회 하면서 API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.</p>
SOP가 무엇이고 SOP를 지키는 이유	<p>웹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.</p> <p>만약 모든 출처에서 자유롭게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다면, 해커가 웹 페이지를 통해 사용자의 데이터에 액세스하거나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는 등의 공격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. 예를 들어, Cross-Site Request Forgery (CSRF)나 Cross-Site Scripting (XSS)와 같은 공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p>
쿠키가 뭔가요?	<p>쿠키는 브라우저 로컬에 저장되는 키와 값이 들어있는 작은 데이터 파일이다.</p> <p>웹사이트 방문 시에 브라우저에 저장되고, 그 이후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서버로 전송됩니다.</p> <p>쿠키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상태를 유지하고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.</p> <p>사용자 인증이 유효한 시간을 명시할 수 있으며, 유효 시간이 경과되면 브라우저가 종료되어도 인증이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다.</p> <p>클라이언트에 300개까지 쿠키저장 가능, 하나의 도메인당 20개의 값만 가질 수 있음, 하나의 쿠키값은 4KB까지 저장한다.</p> <p>Response Header에 Set-Cookie 속성을 사용하면 클라이언트에 쿠키를 만들 수 있다.</p> <p>쿠키는 사용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브라우저가 Request시에 Request Header를 넣어서 자동으로 서버에 전송한다.</p>
쿠키, 세션을 왜 쓰나요?	<p>HTTP 프로토콜의 특성이자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쿠키 또는 세션을 사용한다.</p> <p>기본적으로 HTTP 프로토콜 환경은 비연결성, 무상태성 이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누구인지 매번 확인해야한다. 이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쿠키와 세션을 사용하게된다.</p> <p>* connectionless: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한 후 응답을 받으면 그 연결을 끊어 버리는 특징</p> <p>* stateless: 통신이 끝나면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특징</p>
쿠키의 구성 요소	<p>이름 : 각각의 쿠키를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이름</p> <p>값 : 쿠키의 이름과 관련된 값</p> <p>유효시간 : 쿠키의 유지시간</p> <p>도메인 : 쿠키를 전송할 도메인</p> <p>경로 : 쿠키를 전송할 요청 경로</p>

세션이 뭔가요?	<p>세션은 쿠키를 기반하고 있지만, 사용자 정보 파일을 브라우저에 저장하는 쿠키와 달리 세션은 서버 측에서 관리한다.</p> <p>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를 구분하기 위해 세션 ID를 부여하며 웹 브라우저가 서버에 접속해서 브라우저를 종료할 때까지 인증상태를 유지한다.</p> <p>물론 접속 시간에 제한을 두어 일정 시간 응답이 없다면 정보가 유지되지 않게 설정이 가능하다.</p> <p>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서버에 두기 때문에 쿠키보다 보안에 좋지만,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서버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게 된다.</p> <p>즉 동접자 수가 많은 웹 사이트인 경우 서버에 과부하를 주게 되므로 성능 저하의 요인이 된다.</p> <p>클라이언트가 Request를 보내면, 해당 서버의 엔진이 클라이언트에게 유일한 ID를 부여하는 데 이것이 세션 ID이다.</p>
쿠키와 세션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?	<p>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자의 정보가 저장되는 위치다. 쿠키는 서버의 자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, 세션은 서버의 자원을 사용한다.</p> <p>보안 면에서 세션이 더 우수하며, 요청 속도는 쿠키가 세션보다 더 빠르다. 그 이유는 세션은 서버의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.</p> <p>보안, 쿠키는 클라이언트 로컬에 저장되기 때문에 변질되거나 request에서 스니핑 당할 우려가 있어서 보안에 취약하지만 세션은 쿠키를 이용해서 sessionid 만 저장하고 그것으로 구분해서 서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비교적 보안성이 좋다.</p> <p>라이프 사이클, 쿠키도 만료시간이 있지만 파일로 저장되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종료해도 계속해서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다. 또한 만료기간을 넘겨버리게 잡아두면 쿠키삭제를 할 때 까지 유지될 수도 있다.</p> <p>반면에 세션도 만료시간을 정할 수 있지만 브라우저가 종료되면 만료시간에 상관없이 삭제됩니다.</p> <p>예를 들어, 크롬에서 다른 탭을 사용해도 세션이 공유된다.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세션을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속도, 쿠키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서버에 요청시 속도가 빠르고 세션은 정보가 서버에 있기 때문에 처리가 요구되어 비교적 느린 속도를 가진다.</p>
캐시란 무엇인가요?	<p>데이터나 값을 임시로 저장하는 고속 저장소를 의미합니다.</p> <p>캐시는 주로 빠른 데이터 액세스를 위해 사용되며, 주로 느린 주 메모리나 데이터베이스 등의 백엔드 저장소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저장해 두고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</p> <p>이로써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</p>
하드웨어 캐시	<p>캐시는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과 구성요소에서 사용됩니다.</p> <p>하드웨어 캐시는 주로 CPU와 메모리 사이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됩니다.</p> <p>CPU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므로,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액세스할 수 있는 캐시 메모리를 사용합니다.</p> <p>보통 레벨 1(L1), 레벨 2(L2), 레벨 3(L3)과 같이 다중 계층으로 구성되며, 각 계층별로 크기와 액세스 속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.</p> <p>작은 용량의 캐시 메모리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데이터나 명령어를 저장하고, 이를 이용해 CPU의 작업 속도를 향상시킵니다.</p>
소프트웨어 캐시	<p>소프트웨어 캐시는 주로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나 결과를 임시로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.</p> <p>예를 들어 웹 브라우저에서는 이미지, 스타일 시트, 자바스크립트 파일 등을 로드할 때 이를 로컬 캐시에 저장하여 다음에 같은 자원을 요청할 때 서버에서 다시 내려받지 않고 로컬에서 바로 가져와 사용합니다.</p> <p>이로써 웹 페이지 로딩 속도가 향상됩니다.</p> <p>캐시의 원리는 데이터의 지역성 원리에 기반합니다. 데이터 액세스 패턴에서는 특정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, 이를 이용해 빠른 액세스를 위해 해당 데이터를 캐시에 저장합니다.</p> <p>캐시는 데이터 일관성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데이터가 주 메모리와 캐시 메모리 간에 변화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, 이를 위해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과 같은 메커니즘이 사용됩니다.</p>
캐싱	<p>캐싱은 데이터나 정보를 미리 저장하여 나중에 빠르게 접근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말합니다.</p> <p>주로 데이터나 리소스에 접근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, 여러 컴퓨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됩니다.</p> <p>캐싱은 다양한 시스템과 환경에서 사용되며, 주요 목적은 성능 향상과 리소스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.</p>
웹 브라우저 캐싱	<p>브라우저 캐싱은 웹 브라우저가 웹 페이지의 자원을 로컬 컴퓨터에 임시로 저장하여, 이후에 같은 자원을 요청할 때 서버로부터 다시 다운로드하지 않고 로컬에서 가져와서 더 빠르게 웹 페이지를 표시하는 기술입니다.</p> <p>이는 웹 페이지 로딩 속도를 개선하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.</p> <p>브라우저 캐싱은 주로 정적인 리소스에 적용됩니다. 정적인 리소스는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데 사용되지만, 변경 빈도가 낮거나 거의 없는 리소스입니다. 이에는 이미지, 스타일 시트(CSS), 자바스크립트 파일 등이 포함됩니다.</p> <p>이런 리소스들은 한 번 다운로드되면 여러 페이지에서 재사용될 수 있으므로 브라우저 캐싱을 통해 다운로드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</p>

브라우저 캐싱은 크게 두 가지 유형	<p>브라우저 캐시 (Browser Cache)</p> <p>브라우저는 웹 페이지의 정적인 자원을 로컬 저장소에 캐싱합니다. 웹 페이지를 방문할 때, 브라우저는 이전에 다운로드한 자원 중 최신 버전을 로컬 캐시에서 찾아서 사용합니다.</p> <p>웹 페이지의 <link> 태그나 HTTP 응답 헤더를 통해 리소스의 캐싱 정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</p> <p>프록시 캐시 (Proxy Cache)</p> <p>프록시 서버를 통해 웹 페이지에 접근하는 경우, 프록시 서버는 원격 서버로부터 받은 리소스를 로컬 캐시에 저장하여 다음에 동일한 리소스가 요청될 때 원격 서버로부터 다시 내려받지 않도록 합니다.</p> <p>이는 기업이나 조직에서 내부 네트워크에서 공유하는 인터넷 연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.</p>
---------------------	---